

KIA, 뒷심부족으로 삼성에 역전패...꼴찌 추락은 면해

선발 김유신, 5이닝 2탈삼진 2실점 호투 불구 데뷔 첫 승 '다음기회에'

7회말 삼성 박해민 만루홈런으로 5-7 패배...시즌 16승24패 기록

KIA타이거즈는 선발 김유신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뒷심부족으로 삼성 라이온즈에 역전패 당했다. KIA는 23일 대구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원정경기에서 7회말 5-2로 이기는 상황에서 삼성 박해민의 만루 홈런으로 역전을 허용해 5-7로 패배했다.

이로써 KIA는 삼성을 맞아 1승 2패로 무진시리즈를 기록했고, 일요일 경기 8연패 부진에 빠졌다. 시즌 성적도 16승 24패 승률 0.400으로 9위에 머물렀다.

선발로 나선 김유신은 5이닝 동안 3피안타(1피홈런) 3사사구 2탈삼진 2실점(2자책)의 호투를 선보이며 데뷔 첫 승 요건을 갖췄지만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김유신은 이날 구석을 찌르는 제구력을 앞세워 삼성 타선을 요리했다. 20명의 타자를 상대로 최고 141km의 직구(37개)를 비롯해 슬라이더(23개), 체인지업(14개), 커브(10개)를 적절히 섞어 던졌다.

16승24패를 기록한 KIA는 같은 날 롯데 자이언츠가 두산 베어스에 0대4로 패하면서 꼴찌 추락을 면했다.

선제득점의 KIA의 몫이었다. 1회 1사 1, 3루 상황에서 황대인의 좌익수 희생플라이가 나왔다. 3루 주자 김선빈이 홈을 밟을 수 있었다.

2회에도 KIA가 홈런으로 추가득점에 성공했다. 전날 프로 데뷔 홈런을 폭발시켰던 이진영이 무사 1루 상황에서 상대 선발 이승민의 초구를 노려쳐 투런 홈런을 작렬시켰다.

KIA는 3-0으로 앞선 4회 초에도 한 점을 더 달아냈다. 2사 이후 집중력이 빛났다. 2사 1루 상황에서 최원준이 우측 담장을 직접 때리는 적시 2루타로 1루 주자 박찬호가 빠른 발로 홈까지 파고들어 득점에 성공했다.

삼성은 4회 말 한 점을 따라붙었다. 선두 구자욱이 우전 3루타에 이어 피렐라가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날렸다.

5회에도 양팀은 한 점씩 주고받았다. KIA는 2사 만루 상황에서 한승택이 신인 이승현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냈다. 삼성은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현곤이 솔로아치를 쏘아올렸다.

삼성은 7회 말 승부를 뒤집었다. 1사 만루 상황에서 박해민의 그랜드 슬램이 폭발했다. 박해민은 장현



식에서 교체된 좌완 장민기의 5구를 잡아당겨 우측 담장을 넘기는 만

루포를 쏘아올렸다. 이후 삼성은 8회 초 1사 1, 3루 위

기 상황을 견뎌낸 뒤 8회 말 1점을 더 때내며 승부에 쏠기를 박았다.

이강인, 최종전 81분 소화...4도움으로 시즌 마감

발렌시아, 우에스카에 0-0 비겨...이적 여부 관심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 득점 없이 4도움의 성적표를 남겼다. 이강인은 23일(한국시간) 스페인 우에스카의 엘 알카라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우에스카와의 2020~2021 최종 38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36분까지 81분을 소화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적극적인 움직임과 공격 가담, 예리한 패스로 인

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발렌시아는 0-0으로 비겼다. 이로써 이강인은 이번 시즌 리그 24경기에 출전해 득점 없이 도움만 4개 기록하며 마감했다. 선발로 15번, 교체로 9번 출전했다. 스페인 국왕컵에서 1골을 터뜨려 시즌 기록은 총 1골 4도움이다. 발렌시아는 10승13무15패(승점 43)를 기록, 20개 구단 중 13위로 시즌을 마쳤다.

이강인에게 충분한 출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평가 속에서 그의 이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발렌시아와 이강인의 계약은 내년 여름에 끝난다. 그러나 최근 계속해서 여름 이적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새 동지들 틀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다.

현지 매체에선 울버햄튼, 뉴캐슬 유나이티드(이상 잉글랜드), 유벤투스(이탈리아), 마르세유(프랑스) 등이 행선지로 거론되고 있다.

아리하라, 어깨 수술로 12주 결장 양현종 선발 기회 잡나

결과·회복 여부 따라 올해 복귀 못할 가능성도

텍사스 레인저스의 우완 투수 아리하라 고헤이(28)가 어깨 수술을 받아 장기간 결장이 예상된다.

선발 진입을 노리고 있는 양현종(33)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23일(한국시간) "아리하라가 오른쪽 어깨 동맥류 치료를 받는다. 어깨 수술 후 회복까지 12주 정도 걸린다"고 전했다.

아리하라는 수술 결과와 회복 여부에 따라 올해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아리하라는 올해 2승 3패 평균자책점 6.59의 성적을 올렸다. 시즌 초반에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크리스 영 텍사스 단장은 "아리하라가 올 시즌 중에 던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이 최우선이다. 아리하라의 성공적인 수술과 쾌유를 빌겠다. 구단도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양현종의 선발 진입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올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양현종은 선발과 볼펜을 오가며 뛰고 있다.

5경기에 등판 해 승리 없이 1패에 평균자책점 3.38의 성적을 올렸다.

양현종은 지난 20일 뉴욕 양키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⅓이닝 3피안타 4볼넷 2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다.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은 당시 "양현종이 좋은 투구를 했다"면서 "장기적으로 다른 옵션도 생각하고 있다. 양현종이 지금의 자리를 지킨다면 지금보다 투구수를 늘리는 등 앞으로 더 선발에 맞게끔 기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일주일 쉰 김광현, 내일 화이트삭스전 등판...시즌 2승 도전

이번 시즌 6경기 등판해 1승1패 평균자책점 2.73 기록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일주일을 쉬고 마운드에 오른다.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23일(한국시간) 화상 인터뷰에서 25

일부터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개린티드 레이프 필드에서 열리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3연전 선발 투수를 공개했다.

김광현이 시리즈 첫 날인 25일 출격하고, 잭 플래허티와 존 겐트가 각각 26일, 27일 등판한다.

김광현은 이번 시즌 6경기에 등판해 1승1패 평균자책점 2.73을 기록 중이다. 시즌 두 번째 경기였던 지난달 24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첫 승을 수확했지만 이후 네 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 등판인 샌디에이고전에서는 3⅓이닝 4실점(1자책)으로 몰려나 지난해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첫 패전을 떠안았다.

폭 쉬고 8일 만에 마운드에 서는 김광현은 시즌 2승째를 정조준한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상대하는 건 버리고 입성 후 치용이다.

화이트삭스 선발 투수는 에이스 랜스 린이다. 메이저리그 통산 108승(72패)의 성적을 낸 린은 올 시즌 7경기에서 4승1패 평균자책점 1.55로 호투하고 있다.

전라남도체육회, 2021년도 전통스포츠 보급 사업 선정

대한체육회로부터 3천만원 확보...줄다리기 등 계승 기어 "유소년 학생들 전통 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 등에 최선"



전라남도체육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통스포츠 보급 사업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지난 18일, 대한체육회로부터 2021년도 전통스포츠 보급 사업에 선정되어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고 밝혔다.

전통스포츠보급사업은 전통종목을 체험하고 참여할 다양한 체육활동 행사를 지원하여 전통종목의 저변 확대 및 계승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2개 종목 6,600만원의 사

업비를 확보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됨으로써 진한 아쉬움을 남긴 바 있는 전라남도체육회는 올해 다시 한 번 사업을 신청했고, 결과적으로 전국 8개, 중앙회원종목단체 3개 포함 총 11개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전라남도체육회는 올해 족구와 줄넘기, 줄다리기 종목의 각종 대회와 강습, 체험 박람회 등을 개최하며 도내 전통스포츠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나서며 전통문화와 인식 확산 및 계승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재무 전라남도체육회장은 "전통스포츠 보급 사업은 우리나라 고유의 스포츠인 전통스포츠를 소중하게 여기며 앞으로 계승해야 할 사명감을 갖게 하는 좋은 사업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종목의 전통스포츠보급을 통해 유소년 학생들에게 전통 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 등 꾸준히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손정의 회장 "누가 무슨 권리로 올림픽 강행하나" 日정부에 쓴소리

재일교포 3세의 일본 대표 IT 재벌 손정의(64)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2020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손 회장은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민의 80% 이상이 연기 또는 취소를 원하고 있는 올림픽,

누가 무슨 권리로 강행할 것인가"라며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21일에는 "어느새 일본도 변이 바이러스 투성이다. 입국 관리를 엄격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며 정부의 허술한 방역을 지적했다. 코로나 19 여파로 1년 미뤄진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23일 개막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이 15-16일에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선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재연 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83%에 달했다. 취소가 가장 많은 43%, 재연기가 40%로 나왔다. 또 강행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73%로 높게 나타났다.